나눔 메모

2026 년 11. 01. Wellington Letter of Christ Church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소그룹 나눔 자료 · 고린도후서 11:2

본문

고린도후서 11:2

설교 핵심 요약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기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혼란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사사 삼손은 욕망과 불순종으로 자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욕망과 블레셋의 탐욕을 충돌시켜 결국 당신의 심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뿐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 모든 개입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얻고 주의 성품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입니다.

함께 찾아볼 구절

1. 사사기 14:4 — 삼손의 범죄 중에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2. 욥기 33:29-30 —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라
3. 시편 119:71 —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4. 사사기 14:3 — "그녀가 내 눈에 옳기 때문"이라던 삼손의 당당한 욕망의 고백이 담긴 본문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삼손은 천사의 출산 예고를 받고 태어난 성경의 다섯 인물(이스마엘, 이삭,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중 하나이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교에서 짚었듯, 그는 이 모든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방식대로 결혼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눔

1. 여는 질문

1. 혼난 후 문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는 아이 방에 과일을 깎아 들고 노크하는 부모처럼,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2.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유 하나로 당당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조언보다 내 눈에 옳은 것을 따라 밀어붙였던 선택이 있었는지 가볍게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2. 말씀 나눔

1. 삼손의 범죄 기록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이 실제로 한 행동들은 무엇이었나요?
2. 설교자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거나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욕망과 블레셋의 탐욕을 충돌시켜 심판의 틈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라는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3. 설교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사건 하나를 떠올리며, 그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나눠보면 어떨까요?
4. "예수 잘 믿는데 왜 문제가 멈추지 않지?"라는 당황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때 내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어지는 쪽이었나요?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3. 더 깊이

1. 설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받으면서도 안주하여 싸울 의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내 삶이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안주해버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삼손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와 소명,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신앙의 배경이나 경험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영역이 내 안에 있는지 나눠보면 어떨까요?

2026 년 11. 01. Wellington Letter of Christ Church

4. 삶의 적용

1. 이번 주 어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소리 내어 되뇌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 이번 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혼란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그 즉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번 주 실천

1. 월요일 출근길이나 등굣길, 마음이 상했던 최근 사건 하나를 떠올리며 "이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노트에 한 줄 적어보세요.
2. 가정에서 식사 자리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내가 겪은 이해 안 되는 일 중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경험 하나를 들려주세요.
3. 교회 소그룹 단톡방에 이번 주 묵상하며 떠오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올려보세요.

이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해 보고, 다음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함께 기도

-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진짜 성숙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 삼손처럼 은혜를 받고도 내 욕망과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기르시려는 주님의 열심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에 마음이 박살 나고 상하고 깨지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저희를 포기하심이 아니라 저희를 얻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기에, 불평을 내려놓고 내 이해 너머에 계신 주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